

최태원, ‘AI 데이터센터 울산’ 진두지휘… “네번째 퀀텀점프”

(SK그룹 회장)

그룹 핵심 계열사 역량 총동원
반도체·건설 등 통합 생태계 구축
“AI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

SK그룹이 울산에 초대형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세우며 산업지형 변화의 중심에 섰다. 에너지·건설·통신 등 그룹 핵심 계열사가 총결집한 이번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제조도시를 ‘AI 허브’로 전환시키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가스가 비수도권 최대 규모 AI 전용 시설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고성능 연산 인프라와 냉각·전력 효율성을 모두 갖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다. AI 반도체 연산을 위한 고밀도 GPU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센터보다 10배 이상의 전력과 냉각 용량이 필요하다.

최태원 SK 회장은 AI 전용 데이터센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젠스항 엔비디아 CEO와 만나 AI전환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상의

터를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에 이은 그룹의 4번째 퀀텀 점프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FAB 등 고난도 산업설비 경험을 바탕으로 MEP(기계·전기·배관)솔루션을

적용, 공랭식과 수랭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력·통신·냉수 공급망을 이중화해 무중단 가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설계 단계부터 BIM(건축정보모델링)과 CFD(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으로 공기 흐름과 열 전달을 사전 검증했다.

SK에코플랜트는 데이터센터 시공을 넘어서 ‘AI 인프라 개발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스마트데이터센터 사업그룹을 신설해 사업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까지 자체 수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연료전지 기반 전력공급·냉각 기술(WHRC)을 내재화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냉각에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공급망은 SK가스가 맡았다. 한국석유공사와 합작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LNG 저장탱크를 기반으로 울산 전역에 연료를 공급하고, 인근 SK멀티유틸리티 발전소

는 LNG·LPG 복합 발전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경쟁력 있는 전력을 제공한다. SK가스는 향후 LNG 냉열을 산업용 냉각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통신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전국 AI 인프라망 구축을 주도한다. AI 데이터센터, GPUaaS(서비스형 GPU), 엣지 AI를 축으로 하는 ‘AI 인프라 슈퍼하이웨이’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울산을 지정했다. 향후 GW(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로 확장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SK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I, 에너지, 건설, 반도체를 잇는 그룹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프라 선도기업’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

SK 관계자는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AI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허세홍 GS칼텍스 사장(맨 오른쪽)과 임직원들이 GS칼텍스 제3회 DT Day에 참여하고 있다. /GS칼텍스

GS칼텍스

디지털·AI 전환 성과 공유

GS칼텍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GSE타워 본사에서 사내 혁신 축제 ‘제3회 딥 트랜스포메이션 데이’를 열고 디지털·AI 전환(DAX) 성과를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딥 트랜스포메이션 데이는 GS칼텍스가 업계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행사로, 임직원들이 직접 추진한 혁신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류의 장이다.

매년 현장을 찾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부스를 운영하는 구성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며 열정과 노력을 격려했다.

허 사장은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동료”라며,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에 AI를 결합해 더 빠르고 정교한 의사결정,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협업이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철강업계, 美 직접진출·인프라 확장… 관세장벽 넘는다

고율 관세 여전… 현지화 전략 강화
포스코 美 2위 철강사 지분 인수 추진
현대제철 현지 제철소 건설 속도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에 대한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철강업계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 포스코는 미국 2위 철강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손잡고 ‘K스틸 얼라이언스’ 구축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로 ‘탈(脫)관세’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품목의 관세가 하락했지만 철강에 적용 중인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은 철강을 ‘국가안보 품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협상 대상에서 일찌감치 제외됐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철강 업계는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1, 2위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고관세 돌파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미국 2위 철강사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손잡으면서 고관세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내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올해 4분기 중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연 1727만 톤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미국 2위 철강사로 자동차용 강판 시장 점유율은 45%에 달한다. 포스코가 지분을 확보하면 ‘미국산 인정 효과’를 얻어 고율 관세를 우회할 수 있다.

포스코는 당초 현대차그룹과 함께 루이지애나에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가동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 중장기 사업인 만큼 내부에서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보유한 미네소타 광산과 인디애나·오하이오 제철소 등 일관 체계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7조원 이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조2000억원 추가 현금 창출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추가적으로 1조~3조원 규모 미국 전략 투자를 단행하더라도 재무적 감당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현대제철도 루이지애나주에 8조5127억원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 중이다. 오는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연산 270만톤 규모의 자동차강판 전용 제철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환원철(DRI) 설비와 전기로·열연·냉연공정을 갖춘 저탄소 체제를 구축한다. 현대제철은 이미 현지 법인을 세우고 항만 인프라·전기료 등 인센티브 협상을 진

행 중이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철강사의 ‘현지화 전략’은 단순한 관세 회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생존 전략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전환으로 철강 수요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실제 올해 미국 내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중국의 감산 조치로 국제 열연강판 가격은 톤당 600달러에서 700달러 수준으로 3개월 만에 17% 상승한 만큼 미국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낮고 마진율이 안정적이어서 고부가 제품 중심 기업엔 최적의 시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단순 수출보다 미국 현지 완제품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후무역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상외교와 기업의 투자전략이 병행돼야 실질적 돌파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HD현대-지멘스, 美 조산산업 재건 ‘맞손’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플릿’ 기술 실증

현대화·기술 경쟁력 강화 MOU

HD현대가 독일 지멘스와 손잡고 미국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과 현대화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지멘스와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조선소의 설계 품질 제고, 공정 리스크 최소화, 비용 절감 등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HD현대의 선박 건조 노하우와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비즈니스 플랫폼을 결



HD현대와 지멘스가 ‘APEC 2025’ 행사가 열린 경주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지멘스 조 보먼(Joe Bohman) CTO, 문상민 HD현대 글로벌 전략부부장).

합해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HTX 업무협약… 운송 인프라 기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 정부와 손잡고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K-테크 쇼케이스 행사장에서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과학기술청(HTX)과 ‘모빌리티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 기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HTX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플릿(Fleet) 차량을 대상으로 기술 실증을 실시한다. 아울러 로보틱스와 수소 등 미래 기술 전반에 걸쳐 공동 연구와

적용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내무부의 차량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8년 말까지 다목적 모듈형 전동화 플랫폼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모듈형 구조가 적용된 기아 목적기반 모빌리티(PBV)를 기반으로 한 설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PBV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를 활용해 운영 플릿 플랫폼을 통합하고, 토탈 모빌리티 설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실증 사업은 향후 싱가포르 내무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과도 연계해 싱가포르 정부의 지속 가능한 운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

한진, 원클릭 커넥트 행사

5일 하반기 웨비나… 글로벌 쇼핑 지원

한진이 글로벌 커머스 파트너와 국내 유망 셀러를 연결하는 교류 행사인 ‘한진 원클릭 커넥트(One Click Connect)’를 통해 K-브랜드의 연말 글로벌 쇼핑 시즌 공략을 지원한다.

한진은 오는 5일 ‘원클릭 커넥트’ 하반기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원클릭 커넥트’는 올해부터 한진이 국내 셀러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해외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온·오프라인 교류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알리바바닷컴과 틱톡코리아가 함께한 첫 웨비나에는 20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웨비나는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둔 K-브랜드의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진출 전략 조정, 판매 국가 다변화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11월 메가와리 등 대형 글로벌 쇼핑 이벤트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국내 셀러들이 한진의 파트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글로벌 쇼핑 시즌을 앞두고 K-브랜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e@